



역사 속에서 '건강한 나' 자신의 삶을 찾아보기

역사 속 '청렴' [2]

01

경남교육 '청렴' 역사뉴스

2021. 10.

위급한 상황에도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 김구



1942. 중경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는 김구 선생의 모습



1920. 추정, 김구 선생 가족사진



1940. 김구 선생과 두 아들(김인, 김신)

김구 선생의 큰아들 김인은 안중근의 동생인 안정근의 딸(안미생)과 결혼했다. 1940년 임시정부는 총칭으로 옮겨졌는데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총칭은 도시규모가 커지면서 석탄매연이 극심해 폐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김인 역시 폐병을 앓는다. 안미생은 시아버지 김구 선생을 찾아가 울면서 말했다. "폐니실린이 있으면 폐병을 낫게 할 수 있으니 아버님께서 약을 좀 구해 주십시오." 김구 선생은 안미생에게 말했다. "독립투쟁을 하는 솔한 동지에게도 약을 못 주었는데 어찌 아들에게 약을 쓰겠느냐." 이 일화를 통해 아버지로서 자식의 목숨이 걱정되었겠지만 위급한 순간에도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한 김구 선생의 성품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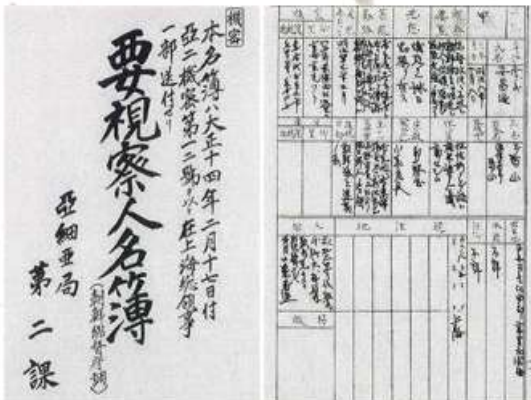
어려운 상황 속에도 약속을 지키는 것 - 안창호



1905.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오렌지를 수확하는 모습



1917. 멕시코로 가기 전 찍은 가족사진



1925. 일제가 안창호 선생의 활동사항을 적은 '요시찰인명부'



서대문형무소에서 작성한 수형자 기록카드

안창호 선생은 아이들을 좋아하였으며 상해에 있을 당시 소년단을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소년단의 5월 행사에 돈이 필요해 안창호 선생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안창호 선생은 수중에 돈이 없어 소년에게 4월 29일까지 돈을 준다고 하였다. 그날은 윤봉길 의사가 상해 흥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한 날로.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지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곳곳에 잠복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선생은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년의 집으로 찾아갔으며 소년의 집에 잠복한 일본 경찰에게 붙들려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라를 위해 내놓는 것 - 이회영



이회영 선생 초상화



이회영 선생 유품(중국식 모자, 의복, 신발)

우당 이회영 선생 가족이 두만강을 배로 건널 때 일화가 있다. 두만강을 건네주는 뱃사공에게 아주 후하게 뱃삯을 지불했다고 한다. 뱃사공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자 이회영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게 고마워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을 해주십시오. 일본 헌병에게 쫓기는 투사들이 돈이 없어 강을 헤엄쳐 건너려 하거든 꼭 배로 강 건너 까지 데려다 주시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집안은 조선시대 대표 명문가였다.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이항복의 4형제 중 2남인 이정남의 후손이다. 선생은 구한말 나라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나의 어려움보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 정정화



정정화 선생 가족사진(맨 오른쪽)



1941. 유치원 추계 개학 기념사진(두번째 줄 맨 오른쪽)

수원 유수를 지낸 정주영의 막내딸로 태어난 정정화 선생은 눈 감기 전 손녀를 봐야겠다는 할아버지의 고집에 11살에 김의한과 결혼을 한다.

정정화 선생이 20살이 되던 해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시아버지 김가진과 남편 김의한을 찾아 상하이로 떠난다.

어렵게 당도한 임시정부의 모습은 처참했다.

자금이 부족했던 임시정부에 정정화 선생은 고국에 돌아가 돈을 마련해 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1920년을 시작으로 1930년까지 총 6번 압록강을 건너 고국에서 독립자금을 마련해온다. 그 후로도 임시정부의 살림은 '독립운동가의 피와 땀이다.'라고 말하며 27년이나 임시정부의 살림을 맡아, 임시정부 요인을 내 가족처럼 돌보았다.